

광주 시민 35% “부부 각자의 가족과 명절 보내자”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44.6% “제사 지내지 말아야”

가부장적 호칭·성역할 개선 필요

명절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면서 광주 지역민 3명 중 1명은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생각은 3년 새 4%포인트가량 늘었다.

18일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광주지역 만 12세 이상 가구구성원은 35.4%(대체로 그렇다 29.7%·매우 그렇다 5.7%)로 집계됐다. 이 답변율은 3년 전 조사 때(32.8%)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각자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데 동의하지 않는 지역민은 45.6%(전혀 그렇지 않다 21.2%·별로 그렇지 않다 24.4%)였다.

광주시민 절반 가까이(44.6%)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답변율은 29.5%에 그쳤다. 2020년 조사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40.5%로, 3년 새 같은 답변율이 4.1%포인트 늘었다.

명절에 가족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을 부를 수 있는 ‘호칭’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3년 새 다소 바뀌었다. ‘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가부장적 가족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율은 54.7%(대체로 그렇다 40.4%·매우 그렇다 14.3%)로, 3년 전(47.7%)보다 7%포인트 늘었다.

가족 안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굳어

졌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율은 29.0%로, 3년 전(10.8%)의 3배 가까이 늘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민은 3년 새 14.7%에서 30.1%로 많이 증가했다.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율은 12.3%에서 22.5%로 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민은 26.2%에서 38.2%로 증가했다.

명절을 간략하고 소박하게 치르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지만 기준자 10명 중 9명꼴로는 명절을 양가(시가·처가)와 함께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달 말 25~39세 기준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벌인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89.6%는 결혼 후 명절을 양가와 보낸 적 있다고 답했다. 결혼 후 양가와 명절을 보낸 적 없다는 답변율은 10.4%로 집계됐다.

‘결혼 후 명절을 보내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가 방문 일정 조율’(25.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양가 부모님 선물 등 지출 부담’(22.7%), ‘장거리 이동·교통 문제’(19.4%), ‘결혼 전과 달라진 역할·기대치 부담’(13.2%), ‘배우자와 시가·처가 관계 피로’(8%), ‘명절 식사 준비 등 가사 부담’(7.1%), ‘휴식 부족·차레 부담 등 기타’(4.5%)가 뒤를 이었다.

명절에 대한 어려움 1위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양가 방문 일정 조율(28.4%)과 장거리 이동·교통 문제(23.4%)를, 여성은 선물 등 지출 부담(26.6%)과 양가 방문 일정 조율(22%)을 각각 1·2순위로 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1%포인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6 병오년 민주가족 합동세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등이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2026병오년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에서 님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광주특별법’ 역사적 첫발...군공항 이전 특혜 등 성과

국회 행안위 통과...재정지원 규모 정부 예산편성 재량에 위탁 한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혜택 등 긍정적인 특혜 조항을 일부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통합의 핵심 동력인 재정 지원 규모를 온전히 정부의 예산 편성 재량에 위탁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달 말까지 남은 입법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보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대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튼튼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타 통합 시도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에는 무안공항 등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항공 네트워크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이 명문화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혜택도 포함된 자립형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장밋빛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특혜가 크게 퇴보하면서 겉보기엔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보훈고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 수요액의 25%를 가산한다는 강력한 영구적 보장 산식이 대안에서 최종 삭제됐다.

대신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무 조항만 남겼다. 사실상 통합 지방정부 예산의 열쇠를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재량에 통째로 넘겨준 셈이다.

향후 국가 재정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

라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더라도 지역 입장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따져 물을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졌다.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이런 한계에 대한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훈고부세 직접 교부 등 확실한 재정 자립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으나 행정안전부 측은 세목 부족 등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신정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아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후속 대응 조치를 통한 조속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사회는 군공항 이전 등 긍정적 특혜를 살리면서도 정부 재량에 휘둘리지 않을 독자적 재정 확보 장치를 남은 논의의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고생 세뱃돈 10만원 시대...명절 가장 부담

부모님 설 용돈 22만7000원

중·고등학교 10명 중 4명 이상이 세뱃돈으로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40대가 부모에게 주는 평균 설날 용돈은 2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18일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6~8세 아동의 30.7%는 매달 용돈을 받고 있었다.

용돈을 받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9~11세의 65.4%, 12~17세 84.9%가 용돈을 받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6~8세’ 2만1000원, ‘9~11세’ 2만8000원, ‘12~17세’ 6만9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는 용돈도 점차 오르면서 설날 세뱃돈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온라인 금융결제시스템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명 중 7명은 설날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 1위로 ‘세뱃돈·각종 경비’를 꼽았다.

지난해 설 연휴 ‘설날 송금분류’ 기능을 이용해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은 ‘10만원’이 4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5만원이 39%로, 10만원(37%)보다 약간 앞섰으나 지난해에는 10만원이 5만원(37%)보다 5%포인트 많았다.

용돈을 주는 처지에서는 10만원이 부담스럽지만 현실은 10만원도 그리 풍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조사한 광주지역 평균 가장면 한 그릇 가격은 7400원으로, 현재 38세가 태어난 1988년 가장면 가격 880원보다 8배 넘게 뛰었다. 광주지역 청소년(만13~18세)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으로, 1988년부터 10배가량 뛰었다.

20대~40대 사용자가 부모에게 ‘설날 송금분류’로 보낸 명절 용돈은 평균 2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9만원, 30대 22만원, 40대 23만원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용돈 금액이 올라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총력

전남도는 18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정부 공모 사업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산단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특화단지소위원회,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평가 등을 추진한다.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7월에 사업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나선 상태로, 광양만권을 세계 배터리 산업의 ‘원로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광양만권은 원료·소재 산업 기반과 항만·물류 인프라, 산업단지 집적 등 공급망 관점의 강점을 갖춰,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인프라·투자·인력·거버넌스 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고, 원료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한 권역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전남도는 특화단지 공모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최근에는 인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전남권 10개 대학과 ‘이차전지 전문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칼라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송장로 입구 공영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2월 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주식회사 호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34(월계동)
청산인 조영희

74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광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801
	• 용동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8001	• 송암 222-9054
	• 중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삼부 372-2352
	• 서광 369-1625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온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